

에틸렌, CPC 제3크래커 화재 “비상”

크래커 보수기간 최소 20일 ... 에틸렌 및 프로필렌 공급차질 불가피

타이완 CPC(Chinese Petroleum)의 No.3 NCC(Naphtha Cracking Center) 트러블로 에틸렌(Ethylene)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에틸렌 시장 관계자는 “2월10일 타이완 CPC의 No.3 NCC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보수기간이 최소 20일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월10일 화재가 발생한 CPC의 No.3 크래커는 에틸렌 생산능력이 23만톤이며, 프로필렌(Propylene)은 10만 50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에틸렌은 CPC No.3 크래커 화재로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월11일이 일본의 휴일로 에틸렌 거래가 없어 12일 이후 거래에 따라 가격이 일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틸렌 시장 관계자는 “아시아 에틸렌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일본의 휴일로 실거래가 없어 정확한 인상폭은 언급할 수 없으나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수급타이트에 따라 가격상승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에틸렌은 1월30일 FOB Korea 톤당 745달러에 거래된 이후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는 상태이며, 프로필렌은 1월30일 FOB Korea 700달러로 40달러 상승한 이후 2월6일 구매의사 가격이 10달러 올랐다.

CPC는 2004년 1월 중국 춘절기간에도 No.4 에틸렌 크래커(에틸렌 생산능력 38만5000톤)의 트러블로 에틸렌 가격강세에 영향을 준 바 있다.

CPC의 No.3 크래커는 나프타(Naphtha)를 원료로 사용한다.

CPC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No.3 23만톤, No.4 38만5000톤, No.5 40만톤이며, 프로필렌 생산능력은 10만5000톤, 20만톤, 22만8000톤이다. <김동민 조사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12>